

## 안철수 탈당... 총선 4개월 앞두고 제1야당 분열

### ■ 안철수 탈당...野 정계개편 격랑속으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2015년 12월 13일 탈당을 공식화하면서 2016년 4·13 총선을 앞둔 야권은 정계개편의 격랑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가 12월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을 선언한 직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안 전 대표가 '철수정치'란 오명에서 탈피, 새로운 정치세력화의 가치를 올림에 따라 야권은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노(친노무현)·86·수도권'의 새정치연합과 안 전 대표를 얼굴로 내세운 '비노(비노무현)·호남'의 '안철수 신당'으로 양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치권이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로 재편된 후에도 2016년 4월 총선에서 여야 일대일 대결구도를 복원하기 위해 야권에서 또 다른 합종연횡이 계속되는 등 대격변이 예상된다.

안 전 대표는 탈당 기자회견에서 "이제 당 안에서 변화와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오늘 새정치연합을 떠난다"며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고, 비장한 각오와 담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거듭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답은 없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또 "안에서 도저히 안 된다면 밖에서라도 강한 충격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겠다"고 세력화의 깃발을 들었다.

탈당 선언에 이어 안 전 대표는 12월 21일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독자 세력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안 전 대표는 국회에서 신당 창당 계획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새정치민주연합 당원, 지지자들에게 큰 마음의 빛을 쬐다"며 "그 빛을 감을 길은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정치를 실천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하겠다. 저와 신당은 불공정한 세상에 분노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 싸울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

는 정권교체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산해야 할 사람들과는 연대하지 않는 정당을 만들겠다. 부패에 단호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넓은 정치 청산과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범국민적 연합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구체적으로 창당실무준비단을 가동, 2016년 초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고 밝히고 또 2월 설 연휴 전에 신당의 구체적 모습을 만들겠다는 일정표도 제시했다.

또 새정치연합과의 연대는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무소속 천정배, 박주선 의원 등 호남의 신당세력과의 연대는 기본적으로 열려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 '물과 기름' 文·安, 끝내 루비콘강 건너며 결별

안 전 대표가 탈당을 결행하기까지 그와 문 대표 사이에서 끊임없는 긴장과 뼈격거림이 감지됐다.

안 전 대표는 9월부터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적극 표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9월 초 "혁신위의 혁신은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당내 부패척결과 낡은 진보청산을 위한 자체 혁신안을 발표, 꾸준히 문 대표의 응답을 요구했다.

하지만 문 대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 오히려 '낡은 진보'는 형용 모순이며, '새누리당 프레임'이라고 반박하면서 두 사람 간 갈등은 일촉즉발 상황이 됐다.

이런 와중에 문 대표는 11월 18일 광주를 방문해 안 전 대표의 혁신안이 "백 번 옳은 얘기"라며 뒤늦게 호응하며 '문인박 공동지도부' 구성을 제안했지만 안 전 대표는 11월 29일 "이미 혁신안으로 해결될 상황이 지났다"며 오히려 '혁신 전당대회'를 역제안했다.

침묵하던 문 대표는 12월 3일 분열의 전당대회를 우려하며 거부한 뒤, 대신 안 전 대표가 제안한 10대 혁신안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안 전 대표의 마음을 되돌리기에 는 역부족이었다.



### 안철수 의원 정계입문부터 탈당까지

2011년

9.6 안철수, 서울시장 선거 불출마 및 박원순 후보와 후보단일화 발표  
10.26 박원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

2012년

9.19 안철수, 대선 출마 선언  
11.23 안철수 대선후보 사퇴, 문재인 야권 단일후보 확정  
12.19 안철수 미국행, 문재인 후보 대선 패배.

2013년

4.24 안철수,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당선  
5.22 안철수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 창립, 독자세력화 시사  
11.28 안철수, 신당창당 준비기구 '새정치추진위원회' 출범

## 2014년

- 1.24 민주당 김한길 대표-무소속 안철수 의원, 오찬 회동
- 2.17 안철수 측 새정치추진위원회, 새정치연합 창준위 결성
- 3.2 김한길-안철수, 제3시대 신당 창당 통한 통합 발표
- 3.16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창준위 발기인 대회
- 3.25 안철수 측 새정치연합 해산
- 3.26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 및 민주당과 합당,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
- 6.4 지방선거
- 7.30 재·보궐선거 참패
- 7.31 안철수·김한길, 대표직 동반 사퇴

### 새정치민주연합



## 2015년

- 2.08 새정치연합 전당대회, 문재인 신임 당 대표 선출
- 5.20 안철수, 문 대표의 혁신위원장 제안 거절
- 7.15 안철수, 국정원 해킹 의혹 관련 당 진상조사위원장직 수락
- 9.09 문재인 "재신임 못겠다" 투표 방침 발표
- 9.13 안철수, 중앙위원회 연기 및 재신임 투표 방침 철회 요구
- 9.16 중앙위원회, 혁신안 통과 및 문재인 재신임 확인
- 9.20 안철수, '당 부패척결' 관련 혁신안 발표
- 10.11 안철수, '낮은 진보 청산' 관련 혁신안 발표
- 10.18 문재인 "낮은 진보 허용모순...새누리당 쪽 프레임", 안철수 비판
- 11.18 문재인,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연대' 제안
- 11.29 안철수, 문안박 연대 거부...문·안 참여 혁신전대' 역제안
- 12.3 문재인, 안철수 전 대표 '혁신전대' 제안 거부
- 12.4 문재인, 안철수 10대 혁신안 당헌에 반영키로 결정
- 12.6 안철수, '혁신전대 거부' 문재인에 재요구...최후통첩
- 12.8 문재인, 안철수 '혁신전대' 재요구 사실상 거부
- 12.12 문재인, 안철수 자택 심야 방문
- 12.13 안철수, 탈당 기자회견



연말뉴스

그런 뒤 안 전 대표는 12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더 이상 어떤 제안도,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혁신전대 수용을 재촉하는 최후통첩을 한 뒤 칩거에 들어갔다. 이후 당내에서는 각종 중재안이 쏟아지며 문 대표와 안 전 대표의 관계 회복에 나섰지만 혁신전대 개최를 둘러싼 두 사람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안 전 대표의 탈당 회견 전날인 12월 12일 심야에 탈당을 철회해달라는 의원 76명의 호소문이 자택으로 전달되고, 문 대표가 이날 새벽 1시께 안 전 대표의 자택을 방문하기까지 했지만 끝내 타협의 길을 찾지 못했다.

### ■ 현역의원에 이어 '안철수 패밀리' 집단탈당...안 "합리적 개혁노선" 천명

안 전 대표의 탈당은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연쇄탈당으로 이어졌다.

먼저 12월 17일 안 전 대표의 비서실장 출신인 문병호 의원과 호남 지역의 유성업(전북 정읍), 황주홍(전남 장흥·강진·영암)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탈당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새정치연합으로는 이길 수 없다. 총선은 물론 대선에서 정권교체 가능성은 전무하다"

며 "당의 변화와 혁신, 총선승리와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당에 남는 건 무책임한 것이지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 의원은 "신당의 단일대오 구축에 집중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안 의원과 무소속 천정배·박주선 의원, 박준영 전 전남지사, 김민석 전 의원 등 신당파 간 '단일신당' 대오 건설에 방점을 뒀고, 유 의원은 "뜻과 노선을 같이하는 분들을 폭넓게 묶어내는 것이 주된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철 의원과 임내현 의원도 사실상 '안철수 신당' 합류를 선언하며 12월 20일과 23일 각각 탈당했고, 28일에는 최재천, 권은희 의원이 탈당 대열에 합류했다.

안 의원의 측근그룹 탈당도 잇따랐다. 측근인 이태규 정책 네트워크 '내일' 부소장을 비롯해 2016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박왕규 '더불어사는 행복한 관악' 이사장, 이수봉 인천경제연구소장, 곽태원 노동경제연구소장, 강동호 뉴딜정책연구소장이 권리당원 3천여 명과 함께 탈당하는 등 새정치연합은 야권 분열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로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안 전 대표는 12월 27일 신당이 추구하게 될 노선으로 '합리적 개혁노선'을 천명했다.

안 전 대표는 낮은 진보와 수구 보수가 아닌 국민의 삶을 우선시하는 실사구시의 정신을 강조, "1970년대 개발독재와 1980년대 운동권의 패러다임으로는 2016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낮은 진보 새정치연합'은 운동권 패러다임에 갇혀 있고, '수구 보수 새누리당'은 과거 개발독재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안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 국정 주도 세력과 이에 맞서는 새정치연합 내 친문(친문재인) 주류 세력을 모두 겨냥, 본격적인 독자적 정치세력화 행보에 나섰다.

## 간통죄 위헌 결정...62년 만에 폐지

### ■ 재판관 7명 위헌·2명 합헌...3천여 명 구제받을 수 있어

헌법재판소는 2월 26일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국가가 법률로 간통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형법상 간통죄 처벌 규정은 62년 만에 폐지됐다.

현재는 전원재판부 소속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박한철·이진성·김창중·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들 재판관은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혼인